

# 하림, 농식품부와 수출 확대 방안 논의

## 삼계탕 EU시장 진출 도전장 K-푸드 세계화에 앞장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정호석 대표이사)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권제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일행이 전북 익산 본사를 방문해 삼계탕 등 수출 제품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제한 실장은 전북특별자치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닭고기 가공 현장을 둘러본 후 간담회 자리에서 하림의 삼계탕 수출 성과와 향후 수출 계획,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지난 2월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혁신 전략에 따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림 박준호 가공식품대표는 “농식품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삼계탕 검역 협상이 타결된 점은 향후 시장 다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하림은 EU 삼계탕 초도수출 준비에 한창이다. 앞으로 안정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생 기준과 세무 사항에 대

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뒷받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림산업 한상명 공장장은 “떨리면서 가가제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기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도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권제한 실장은 “수출 마케팅,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현지 유통 바이어 발굴 등 지원과 관심은 물론, 정부 간 검역 이슈 등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화 제품 개발, 주

요 유통 매장 입점 확대 등 신시장 개척 노력과 동시에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주)하림은 2014년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삼계탕을 수출한 이래, 미국 시장 삼계탕 수출의 3/4를 맡고 있는 선도 기업이다.

2023년도 우리나라 전체 삼계탕의 수출액 기준으로 16.6백만불 중 (주)하림이 7.4백만불(44.5%)을 차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삼계탕 수출 1위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삼계탕 뿐만 아니라 라면 제품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이재훈기자



북전주농협은 지난 23일 전주레인보우팜에서 하나로마트 우수고객 초청 딸기수확체험행사를 진행했다.

## 북전주농협, 딸기수확체험

### 하나로마트 우수고객 초청 행사 진행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23일 북전주농협 조합원(강한별)이 직접 운영하는 전주레인보우팜(전주시 용정동)에서 하나로마트 우수고객 초청 딸기수확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나로마트 이용고객 50여명이 딸기수확체험을 신청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14팀, 42명이 참여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로 직접 딸기를 따서 맛을 보고 각종 식물과 흙을 만지면서 자연과 농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품으로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북전주농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참여행사를 기획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우리농촌 알리기 등 농업·농촌과 소비자의 가교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미력하니까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우광 조합장은 “직접 체험을 통해 딸기가 어떻게 재배되는지도 알 수 있고, 농업·농촌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남원농협,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영농교육 진행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이 미리 농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및 영농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진행은 남원농협 관할 7개 동 7개 면을 남원농협 농기계센터 직원들이 순회하며 오는 4월4일까지(24일간) 실시하며,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예취기 등 고장빈도가 높은 농기계의 정비와 수리 및 농기계 관리요령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발병율이 높았던 벼 깨씨무늬병 예방 기술에 대한 영농교육을 진행, 농업인의 자가 정비능력 향상과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및 병해충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열 조합장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농촌인력증가사업, 농작업대행사업 등 영농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농업인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 김종훈 경제부지사, 직접 새만금 세일즈 나서

### 새만금 관심 기업 대상, 관광레저용지 현장 설명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7월) 등 새만금을 향한 민간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새만금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25일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방문하여 기업관계자들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부지사는 33센터, 고군산군도, 신시야미 일원을 새만금 관광레저 박권일 대표 등 기업관계자들과 방문했으며,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새

만금 사업지역 추진현황을 안내했다.

최근 완성된 새만금 남부·동서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달라진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 기업관계자는 “새만금이 잠재적 후보지에서 이제는 즉시 투자 가능한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관광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새만금을 전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명품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LX공간정보연구원, 공간정보 기반 식량안보 혁신 필요성 강조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원장 광희도)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에게 공간정보를 통한 농업혁신을 강조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지난 22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된 '2024 광주특구 과학기술 시연회 페어'에서 원 소속 배성훈 박사가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에게 공간정보를 통한 농업혁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광주연구특구 혁신주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시회, 포럼, 성과공유회, 토론회,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LX배성훈 박사는 AI 기반 UN SDG달성 전략 세션에 참여해

능한 농업·식품 시스템(CRP)을 예로 들며 국내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정밀지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직이차륙 드론인 VTOL드론과 AI모형을 활용한 농업정밀분석 사례를 소개하며, 지능형 농업 지원 플랫폼의 확산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AI기반 UN SDGs 세션 좌장을 맡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교수는 “세계식량기구에 제출할 사례로 검토해 볼만하다”라며 배성훈 박사의 과제발표에 힘을 보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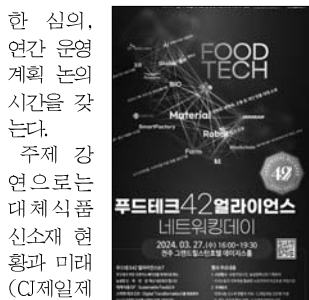
한편 LX공간정보연구원은 2019년부터 농업분야 혁신을 위해 ‘드론영상기반 농경지 DB구축’, ‘정밀농업 특화 5G 양자암호 VTOL드론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 27일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네트워킹 데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이하 푸드테크42)가 오는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네트워킹데이를 열고 그간의 성과 공유와 협의체간 교류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테크42는 지난해 9월 20일 전북도와 푸드테크 관련 기업 연구·지원기관, 대학, 투자전문사 등으로 구성, 출범했다. 도시가 직면한 과제를 지역의 자원, 아이디어, 공공R&D, 민간투자자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협의체다.



오는 27일 네트워킹데이에는 △디테일러 바이어 주한테마파크사관 이노베이션센터장, △KT 최육진 상무, △뉴로메카 신윤호 이사, △롯데중앙연구소 김경준 연구전문위원, △광세 이성준 대표, △스왑앤스위츠 유승희 대표, △전주대학교 이해원 산학부총장 등 기관, 기업, 대학의 관련 전문가 70여명이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전행사로 대체육 연구개발 기업인 (주)수시스링크의 제품을 활용한 뉴로메카의 튀김로봇 시연과 시식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동시에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도 병행 개최되어 지난해 발굴된 협업과제에 대해 한 심의, 연간 운영 계획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주제 강연으로는 대체식품 신소재 현황과 미래 (CI제일제당 김우현 부장), K-푸드 글로벌 확산 전략(뉴로메카 박영천 상무), 푸드테크 지식재산 보호방안(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진병욱 팀장) 등 푸드테크시장동향 전반과 발전전략을 엿볼 수 있다.

그간 푸드테크 분야의 구체적 현안 논의를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를 목표로 하는 대체식품(SF Sustainable Foods) 그룹과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이 목표인 스마트제조 그룹 두 개 부문으로 특화 추진되어 왔으며 향후 협력 분야는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